

아케엠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 8,7)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사순 제5주일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종으신 주 하느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앞에서 서 있는 우리를 가련히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어, 우리 마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제1독서

이사 43,16-21

• 입당송 시편 43(42),1-2 참조

• 화답송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 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겔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필리 3,8-14

• 복음환호송 요엘 2,12-13 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복음

요한 8,1-11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사순 시기를 지내는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기도와 단식과 자선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을 살피 주시어,
과학만능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3.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오니, 이 땅에서
사형 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어, 우리 사회에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한걸음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국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 영성체송

요한 8,10-11 참조

[아캠] 2025년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 신청

- ▶ 일 정: 9월 12일(금) ~ 18일(목) / 6박 7일
- ▶ 인 원: 선착순 40 명
- ▶ 예상 비용: 1 인당 \$1,200 (항공권 별도)
- ▶ 접수 방법: 순례 담당 여행사인 '마리아투어'에 직접 신청 (mariatour121@gmail.com)
(항공권 구매 후, 신청서/ 여권 사본 첨부 메일 발송, 신청서는 사무국에 문의)
중요: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성함을 사무국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캠] 부활 시기 한인 사제 공동체 사목 방문 일정

- ▶ 방 문: 쿠웨이트 공동체, 김상호 알렉시오 신부님
- ▶ 기 간: 4 월 10 일(목) ~ 4 월 27 일(주일)



[아캠] 부활 판공 성사



< 기 간: ~ 주님 부활 대축일 전(4월 20일)까지 >

각 공동체 별로 본당의 영어 고해성사 일정을 참고하시어 성사에 참여합니다. 성사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아캠] 주보 광고 신청

신자 업체들을 원활히 소개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고, 주보 광고를 통해 공동체 교우들 사업에 작은 도움과 힘이 되고자 합니다. 주보 광고 게재를 원하는 신자 업체는 '아캠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교종 프란치스코] 4월 기도 지향

4월: 신기술의 사용

신기술의 사용이 인간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우리 시대의 위기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25년 '희망'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부활 삼종 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황 프란치스코를 위한 기도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종 프란치스코를
자애로이 돌보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는 예수회원으로, 사제로, 대주교로, 추기경으로,
그리고 교황으로서 당신을 섬겨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아드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포함하여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 연민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새로운 병마와 맞서 싸우는 이때,
그를 돌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고통을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바칩니다.

아멘.

- 제임스 마틴 SJ 신부 -

선 · 생 · 님 · 공 · 금 · 해 · 요 ·



<11> 높은 데서 호산나

주일학교 미사가 끝나고 간식을 받아 맛있게 먹던 한 학생이 저를 보더니 “선생님, 미사 때마다 ‘높은 데서 호산나!’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부분을 설명해주면서 호산나의 뜻도 함께 알려 주었습니다. 감사기도는 미사 성제의 중심이자 정점이며, 성찬기도를 시작하는 머리 기도로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초대로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수난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회상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중 대화로 시작하는 감사기도는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무슨 일이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릅니다.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 세상 것을 잠시 떨쳐 버리고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나와 너, 형제자매·세상 만물·행복·영원한 생명·삶은 하느님의 창조, 구세주 예수님의 구원사업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림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사제는 감사송을 바칩니다.

감사송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바치신 감사의 기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으로, 축일의 성격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니다. 모든 감사송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을 위해 행하신 것,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구원을 새로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송을 마친 후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하거나 낭송합니다.

거룩하시도다!(Sanctus: 상투스)

이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늘의 천사가 불렀던 환호’(이사 6,3)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히브리 백성들이 환영했던 환호’(마르 11,9-10)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호산나(Hosanna)

이는 구원자에 대한 환호로 “주님 비오니, 저를 구원하십시오!”(시편 118,25)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신비여!(1코린 11,26)

이는 성찬례 안에서 신앙의 신비가 구체화하고, 우리의 일치에 바쳐 실현된 것을 가리킵니다. 신앙의 신비는 연중, 사순, 부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마침 영광송

이는 하느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는 찬미와 환호성입니다. 이는 인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뤄졌음을 교우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사제는 성체가 놓인 성반과 성혈이 담긴 성작을 높이 들어올립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과 함께 이루신 구원 업적에 대한 최대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안에 살아계심을 강조합니다.

Hosanna!

가톨릭 평화 신문, <박오란 교리 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편집



마귀에게 절대 없는 것

글: 공지영 마리아(작가)

누군가 내게 물은 적이 있었다.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마귀가 가지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하느님은 그걸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 그걸 아니?”하고. 나는 별생각 없이 “사랑 아닐까?”라고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가끔 마귀도 자식 정도는 사랑하지 않을까? 그것에 ‘참’ 자가 붙는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는데, 그가 말했다. “정말로 마귀가 가지지 못한 것은 바로 ‘희생’이야. 네가 어떤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살펴보고 할 때 이 부분을 유의해. 그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지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키는지.”

나는 이 땅에 여성으로 살면서 오랜 세월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 민감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내 또래 중에서도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오빠나 남동생을 위해 진학을 포기하는 것도 여러 번 보았으며, 경제력 없는 어머니가 남편에게 맞고 살면서도 아이를 위해 헤어지지 못하는 것도 솔하게 보았다. 이에 열거한 사례들에 대해 반항심 가득한 내가 반감을 품었음은 물론이며, 나는 희생이라는 말이 가지는 폭력성이 싫어 더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명제를 묵상하면서 오래전 들었던 마귀의 일화가 떠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보니 어린 소녀들에게 강요되었던 희생, 힘없는 아기 엄마에게 강요되었던 희생, 더 나아가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이들이나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소녀들에게 강요되었던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희생은 선로에 떨어진 할머니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청년에게 걸맞은 단어이다. 신장이 망가진 늙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주는 큰딸의 의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강한 자가 약자에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희생이라기보다 그냥 폭력일 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 보였다. 자신의 미각을 위해 신자 전체에게 다른 음식을 강요하는 사제부터,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희생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뻔뻔함은 전염병처럼 더 무섭게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 봉사를 오래 한 법륜 스님의 말 중 하나는 그 정곡을 찌른다.

“처음에 나는 교도소에 가서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썼어요. ‘희망을 가지셔야 한다’고도 했고,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라’고도 했죠.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다들 억울하시죠?’ 그 순간 엄청나게 힘찬 합창이 들려왔어요 ‘예!!’ 하고. 교도소에는 억울하다는 사람이 이미 만원입니다.”

사순 기간 동안 나는 십자가를 바라본다. 거기에는 세 분의 희생이 수놓아져 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내놓으신 하느님, 자신을 오롯이 희생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침묵으로 견디신 성모님. 그래서 십자가에는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나 보다. 우리보다 만 배는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마귀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그것,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이자 어리석음으로만 보였다는 그것, 십자가의 희생.

“그러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갈라 6,14)

2025년 3월 아캠 회계보고

(단위: AED/소수점 버림)

구분	수입			지출			잔액
	내용	금액	비고	내용	금액	비고	
아캠 기금	전월 이월금	19,973	(2025년 2월 이월금)	출장비	500	(아캠 공통적 사목 방문 출장: 카이로)	
	후원금	0		피정/교육비	1,530	(사순 피정 1,2차 특강료)	
		2,000		구매/기타	113	(해외 송금 수수료)	
	납입금	1,200		성무 활동비	2,000	(아캠 전담 사제: 3월)	
				가난 기금	160	(3월 아캠기금 5% 적립)	
	기타 수입금 (이자 및 기타)						
		23,173			4,303		18,870
가난 기금	전월 이월금	5,691	(2025년 2월 이월금)				
	모금액	160					
		5,851			0		5,851
수입 합계			29,024	지출 합계			4,303
							24,721

< 아캠 후원금 상세 내역 >

개인: (1) 진춘언 요한보스코 (2) 박효진 세실리아 (3) 김화영 라우렌시오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बैं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100% Handmade 100% Fresh Fruits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SGE 두바이삼성학원 강남 삼성학원 두바이 분원 1. 아부다비/두바이 국제학교 2. 현지 대학 입학 대행 서비스 3. 특례 입시 전문 4. 성인반 영어 프로그램 정미숙 라파엘라 (+971) 50 461 3991 /  : 두바이삼성학원
---	--	--